



전통적 아내 역할의 변화에는 가사 부담을 줄여 주는 가전제품의 등장도 한몫을 했다. 1950년대 후반에 나온 전기레인지로 주부가 요리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1882년경 제작된 가정용 재봉틀 광고. <책과 함께 제공>

## ‘아내의 역사’ 신정일 지음



# 아내는 더이상 남편에 속한 재산이 아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 또는 최악의 재산은 그의 아내이다.” 영국 역사가 토머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고대와 중세, 프랑스 시민혁명 때까지도, 아내는 가족이나 노예와 다름없는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예비 신부의 집에서 봉사했다. ‘처녀라는 재산’을 얻기 위한 투자였고, 기존 소유권을 아버지로부터 ‘양도’받기 위한 비용이었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아내는 변화했다. 아내들이 더 이상 남편에 속한 ‘재산’인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위상도, 지위도 달라졌다.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인 빌 클린턴이 주유소를 찾았다. 기름을 넣고 나오면서 힐러리가 말했다. “주유소 주인이 어린 시절 내 친구 중 하나였어.” 그 때 클린턴이 잘난 척하며 말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남자 대신 나랑 결혼해서 좋지?” 힐러리는 바로 맞받았다.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일걸?” 이런 농담이 돌아다닐 정도로 아내의 역할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미셸 클레이만 젠더 연구소의 매릴린 엘름이 쓴 ‘아내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아내’라는 역할을 두고 일어났던 사회·문화적 변화를 풀어내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아내 이브, 아브라함의 정실 사라와 노예 하갈, 야곱과 레아, 라헬 자매로부터 시작해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중세 유럽, 시민 혁명기, 서부 개척 시대와 전쟁 등을 통해 여성관과 아내의 개념, 역할의 변화를 되짚어보고 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아내의 개념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대대손손 아내들에게 영향을 끼친 법과 관행은 어떤 것인지, 오늘날까지 형성돼 온 아내의 존재 양식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전통이 살아남고, 어떤 전통은 끊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저자는 고대 시대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돼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던 여성이 중세 유럽과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며 육체적으로 강해지는가 하면, 일정 수준의 독립심을 갖게 됐고 전쟁 등을

거치면서 집안일 뿐만 아니라 남성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곳까지 진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호메로스, 사포, 셰익스피어, 헨리크 입센의 희곡, 신문의 풍자만화와 칼럼, 광고, 대중잡지, 20세기 성 풍속과 첫날 밤 풍경 등 사례도 풍부하다. 책을 따라 가다 보면 급진적 이유를 첫 손으로 꼽았던 결혼의 조건에 ‘사랑’이 들어가게 된 배경,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는 결혼 형태로 발전하게 된 상황에 파악하게 된다. 오늘날 경제력을 얻고 정치 참여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적 아내상은 이상적 아내상을 대표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독립을 바탕으로, 아직은 결혼만 단계인 남편과의 동등한 가사 분담을 통해 한층 더 완벽한 부부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래 여성들이 희망하는 아내상,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가 궁금할 법 하다. <책과함께·2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5·18, 산자들의 딸 아닌 망자들의 이야기

### ‘오월의 사회과학’ 최정운 지음

‘5·18에 관한 ‘세월이 약이 아니다.’ 5·18 담론을 집대성한 ‘오월의 사회과학’의 저자 최정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오월의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5·18이 순수한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망자들은 이제 하늘로 떠나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젠 고집스런 산 자들끼리의 딸이 아니라 망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죽은 이유와 하늘로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서로 말해주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한국 현대사를 바꿔놓은 큰 사건인 5·18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쓰여졌다. 5·18을 전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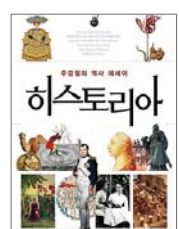


르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닌, 적어도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정도는 읽고 개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저자는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상항을 박진감 넘치는 문제로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발간됐다 절판된 것을 출판사를 바꿔 다시 펴낸 것으로, 5·18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인물이 만들어지고 오고 갔는가를 조망하는 ‘담론 분석’을 시작으로 5부에 걸쳐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책 중 한 권으로 뽐낸 세계에 소개됐다. <오월의 봄·1만7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역사는 현재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

### ‘히스토리야’ 주경철 지음

‘대항해 시대’, ‘문명과 바다’ 등을 쓴 역사학자 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정제된 글쓰기와 다양한 시선이 담긴 글들로 독자와 교감을 나눈 저자 중 한명이다. 주교수의 신작 역사 에세이 ‘히스토리야’가 재미있게 읽히는 건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길어올린 무궁무진한 소재의 다양성에서도 기인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현재’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오랜 인류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터이고 그런 역사의 경험을 찾아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책은 모두 5개 장으로 나눠 130여가지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세식 화장실의 유래, 교통에서 인간을 구해준 마취 등을 다룬 ‘문명과 자연의 만남’, 축구가 전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이유와 각 나라에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가 불려지는 맥락을 담은 ‘문화의 스펙트럼’, 돈 후안과 카사노바, 안네 프랑크 등 인물들에 대해 조망한 ‘역사 속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전쟁, 소년 십자군 이야기 등에 관해 쓴 ‘갈등과 전쟁의 역사’, 소설 ‘갈리버 여행기’에 소개된 정쟁(政爭) 치유법 등을 다룬 ‘사유와 상상의 힘’ 등 나머지 장들도 흥미롭다. <산처럼·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랑·결혼·가족’ 그들의 일상 속으로

### ‘사랑의 기초’ 연인들·한 남자 정미현·알랭 드 보통 지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알랭 드 보통, ‘달콤한 나의 도시’의 정미현. 두 사람이 공동기획한 장편 소설 두권이 나왔다.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놓고 글을 쓰자 기획한 두 사람은 각각 뜻밖의 젊은이의 사랑을 그린 ‘사랑의 기초-연인들’(정미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부부의 사랑을 그린 ‘사랑의 기초-한 남자’(알랭 드 보통)를 내놓았다. 2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메일을 주고 받고, 상대방의 원고를 읽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원고를 수정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연인들’은 이십대 후반의 민아와 준호가 주인공으



로 등장하는 연애소설이다. 추천사에서 보통은 ‘평범한 남녀의 흔해빠진 사랑 이야기는 그녀의 손을 거쳐 생명을 얻어 그 생생함으로 우리 마음에 잔잔한 슬픔의 물결을 불러 일으킨다’고 썼고,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도 함께 접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남자’는 알랭 드 보통의 17년만의 신작 소설. 서로 열렬히 사랑해 결혼한 벤과 엘리지가 주인공으로 그들의 가정생활, 양육, 사랑과 섹스에 대한 고민들을 그린 작품이다. 정미현의 평은 ‘결혼으로 완성된 그들의 사랑이 일상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즉 아름다운 해피엔딩 뒤에 펼쳐지는 리얼리티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 <틀·각권 1만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동화를 뒤집다, 핵심을 읽는다

### ‘동화독법’ 김민웅 지음

고생하다가 마침내 백조의 꿈을 이룬 미운 오리새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동화독법’은 말 그대로 동화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 꼼꼼히 읽어보고 새롭게 깨닫추면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실생활에도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상식을 뒤집는 발상이 눈길을 끈다.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해 ‘신데렐라’, ‘인어공주’, ‘이슬 우화’ 등 10가지 이야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슬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 관에 박힌 줄거리에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일관된 주제가 아닌, 정보 독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인어공주’는 사춘기 소녀의 성장통으로 바라보는 식이다. <이봄·2만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기불황·기후위기, 마르크스라면...

### ‘마르크스가...’ 찰스 더버 지음

오늘날의 사회를 ‘기업지배 사회’, ‘코포크라시(corporacy)’로 정의한 보스턴대 사회학과 교수인 찰스 더버가 마르크스의 시선으로 우리 시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마르크스가 살아있다면’은 런던 하이게이트 묘지에서 만난 마르크스의 유럽과 금융 위기와 경기 불황, 핵 위험과 대량살상무기 등 전쟁 체계를 비롯,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등을



주제로 자본주의 사회 문제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마르크스라면 21세기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할까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아울러 독일의 공동결정제, 토착사회주의와 연대경제, 협동조합 등을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살펴본다. <트랜스 & 크로스·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신간

▲시골한의원사 고은광순의 힐링 = ‘내 삶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여 행복해지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픈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한의사이며 마인드힐링 전문가, 사회운동가인 고은광순이 충청도 시골마을의 삶을 다루며 ‘마음을 비우고 자연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전한다. <우리창·1만5000원>

▲마흔다섯 기러기아빠의 대한민국 탈출기 = 평범한 기러기 아빠가 호주 시드니 초밥집 사장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민 경험기. 전직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마태운씨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중년의 아버지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민을 결정하면서도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인생은 결국 풀리는 방정식’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황금연못·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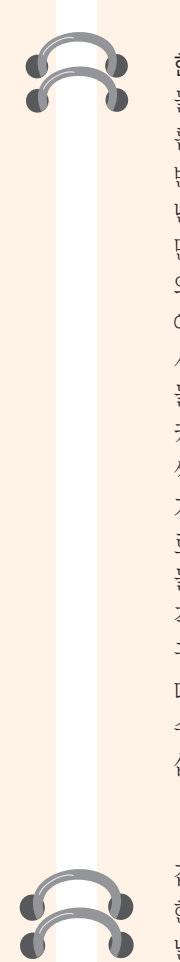
▲질가요 엄마 = ‘엄마’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울컥 솟구치게 한다. 대하소설 ‘객주’의 작가 김주영(73)이 펴낸 장편소설로, 등단 41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절절한 사모곡이자 내밀한 자기고백을 담고 있다. 서울 사는 주인공이 새벽 3시쯤 ‘내려오셔야 하겠습니까’라는 시골 동생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다. <문학동네·1만2000원>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현존하는 사회 사상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피터 버거의 자서전으로, 루터와 사제가 되려다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버렸다면 풀어놓는 인간 세상 탐험기이면서 그의 사상과 저작들의 연대기다. 사회학자로 다루는 문제들, 만난 사람들, 겪은 일 등 자신의 지적 여정을 적당히 언급하면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적당히 편파적이면서 솔직하게 펼쳐 보인다. <책세상·1만7800원>

▲그림 너머 그대에게=이주환 수필대 교수의 에세이집으로, 클림트·반 고흐·샤갈·루벤스·렘브란트·모네 등 여러 화가의 작품 50점을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갤러리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를 권한다. <예담·1만3000원>

▲레가토=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등단한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권여선이 15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장편소설로, 참비 문화블로그 ‘창문’에 연재한 소설을 책으로 펴냈다. 30여년 전 카타콤이라 불리던 반지하 서클룸에서 청춘의 한 시절을 보낸 인물들을 내세워 인생의 아이러니를 포착한 작품이다. 제목 ‘레가토’는 악보에서 음과 음 사이를 이어서 부드럽게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음악용어로, 과거와 현재를 끊지 말고 이어서 읽어달라는 저자의 주문으로 여겨진다. <창비·1만2000원>



▲웅선생의 한국사 1~8권=어린이들을 위한 역사책으로, 새롭게 개정된 교과 과정을 반영해 초등학교 3~4학년부 터 읽을 수 있도록 꾸민 통사책이다. 가족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 아이들 또래 캐릭터를 등장시켜 질문하고 이해함으로써 ‘생각하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를 주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의 젊은 역사학자들로 초고를 검토하고 정보글을 쓰는가 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대 4차례에 걸쳐 글과 구성을 다듬어 완성도 있는 원고를 집필하는데 4년이 걸렸다.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 이우일이 500개의 삽화를 집어넣었다. <사평출판·각권 1만2000~1만3000원>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어느날 갑자기 낯선 동네로 이사온 아이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책. 생활의 터전을 옮겨 이사 온 첫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이의 마음을 그려냈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로 친구를 사귀는 아이의 하루를 묘사하고 있다. ‘칼데콧’을 받은 ‘안녕 베이베이 창문’의 저자 노튼 저스터가 썼다. <책과함께·1만1000원>

▲난 자신있어요!=보조 바퀴를 떼고 두발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예민이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일을 시원한 그림과 섬세한 감성표현으로 묘사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큰소리는 아이의 모습이나 묵묵히 받아주며 격려하는 아빠의 모습은 우리네 모습이 더 정겹다. <노란대지·1만1000원>

▲아빠, 재들은 언제 가요?=독일 어린이책작가 우테 크리우제가 이혼과 재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 주목해 아이들의 혼란과 슬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유머와 재치를 담아 풀어냈다. 가족이 붕괴됐을 때 행복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된다는 식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접근하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 어린이 책꽂이